청도 정상리의 아시조 낭중공 춘향

權寧睦씨 수임으로 4월 22일 봉행

▲ 봉암재사에서 집사분방례를 행하고 있다.

▲ 수임 이하가 제물을 봉송하여 봉암재사를 나서고 있다.

4월 22일, 음력 3월 27일 정유丁酉의 하정일下丁日에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의 단소壇所에서 안동권씨 2세조 낭중공郎中公의 2009년 춘계향사가 봉행되었다. 단소가 소재한 정상리亭上里의 아랫마을 봉하리鳳下里의 봉암재사鳳巖齋舍에 당일입재當日入齋를 해서 당일 행사를 하는 바 이날 아침 10시까지 입재한 참제원은 초헌관 이하 60여인이었다.

참제원 후손들은 이제 이곳 일대의 낭중공 단소와 재사 및 유허비각 등 유적을 버리고 단소를 안동으로 이설한다는 대종회와 중앙종친회의 발표가 나간 뒤인지라 이에 대한 이야기로 삼삼오오 수군거리면서 다소 흉흉한 분위기였다. 가령 포항의 영일문중에서는 안동 능동의 능陵자와 청도 봉암의 암巖자를 취해 능암회陵巖會라는 명칭으로 화수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청도의 봉암재사가 없어지면 자기들의 화수회 명칭은 어찌 되어야 하느냐면서 허탈해 하였다.

광주의 고 권승관權昇官공의 단독헌성으로 세운 유허비각이 웅장한 콘크리트골조인데 이는 이건이 불가능해 파쇄해 폐기해야 하므로, 이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비각 안을 들여다보고 또는 어루만지기도 하고 있었다. 일대의 위토도 매각하고 유서어린 재사는 방치할 것이라는 설도 있어, 단소를 이같이 하여 이설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여 답을 주는 이는 없었다.

봉암재사의 정당에서 대종회 권순갑權純甲 간사장의 사회로 10시경에 개좌開坐가 되어 안동의 시조묘소를 향한 망배望拜와 상읍례相揖禮를 나누고 이날 향사의 수임首任으로서 초헌관 겸 봉암재사의 도유사都有司가 되는 전 대종회장대행 권영목權寧睦씨가 인사말을 하였다. 아시조 낭중공의 향사에 ‘원근에서 참제해오신 데 대해 감사하고 향사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게 수임 인사말의 요지였다. 이어 집사자가 분방되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영목權寧睦
아헌관 : 권삼석權三錫
종헌관 : 권택문權宅文
진설 : 권기덕權奇德、권재주權在珠、권순만權純萬、권택종權宅琮、권중원權重元、권기범權奇範
축 : 권경석權景晳
찬자 : 권기갑權奇甲
봉향 : 권혁세權赫世、권혁성權赫性、권순덕權純德
봉로 : 권종길權鍾吉、권상흠權相欽、권태환權泰煥
봉작 : 권오윤權五允、권태윤權泰潤、권건중權建重、권경섭權景燮、권기대權奇大、권경일權景一
전작 : 권오인權五寅、권기윤權奇允、권오삼權五三、권혁중權赫重、권학석權學錫、권정섭權正燮、권인탑權仁塔、권부현權富鉉、권혁조權赫照

집사자가 분방되고는 막바로 제물봉송이 이어지며 헌관 이하가 도열하여 봉하리 재사 경앙문景仰門을 나서 정상리 단소로 향하는 행렬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날의 당회堂會는 생략되어 열리지 않았다. 이에 당회가 열리면 단소를 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할말을 토로하고자 벼르던 몇몇 후손은 말문을 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같았다.

대종회 집행부에서는 예년에 해오던 당회를 생략할 뿐만 아니라 작년 추향 이후의 경과와 결산보고도 하지 않고 다만 이날의 제수 헌성 내역만 공표하였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권영목 도유사 20만원
부산종친회 10만원
정조공종회 10만원
부산장년회 5만원
권혁중 10만원
권건중 10만원
대구종친회 10만원
권주연 3만원
권종길 5만원
근기요산회 10만원
권경섭 10만원
권순만 5만원
권혁세 10만원
부산청년회 5만원
권미현 10만원
중앙종친회 50만원
권중학 5만원

제물을 봉송하는 행렬이 정상리 구룡산록의 단소에 도착한 것은 11시 30분경, 진설을 마치고 본행례가 시작된 것은 12시이고 12시 30분경에 후토제까지 행사가 완료되었다. 단정에서 헌관의 음복례를 행하고 하산해 봉하리 재사로 돌아와서는 일반 참제원이 도시락으로 준비한 음복을 하였다.

<사진 · 글 權奇允>

▲ 단소의 향례에서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 헌관 이하가 부복한 가운데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2세조 낭중공 유적 수호 결의문

경북 청도 정상리와 봉하리의 우리 2세조 낭중공의 단소와 유적을 훼철하고 비석만 뽑아 옮기려는 망동에 분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규탄·결의한다.

1. 청도의 낭중공 유허와 단소가 대종회와 중앙회에서 원거리이고 올라다니기 귀찮아 봉제사와 수호가 힘들다면 이를 인접지역의 후손종회에 집사를 이양하여 별도 낭중공 종회를 구성케 하라. 자고로 조상은 가까운 데 사는 자손이 섬긴다 했다.
2. 지금 대종회의 소수 임원과 중앙회 집행부를 제외한 백만 안동권씨인의 9할 이상이 이 낭중공 이단설의 연유를 모르며 어이가 없어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무언의 다수와 함께 궐기할 것을 다짐한다.
3. 하계공霞溪公 유愈·정간공靖簡公 혁爀·학림공鶴林公 방訪·이재상공彛齋相公 돈인敦仁·수정공遂庭公 익상益相 등 선대가 탐심하고 80년전 전국의 성손이 헌성하여 이룬 유허와 단소를 허물고 기업 연수원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에 매각하려는 뒷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공경으로 조상을 받드는 평상심을 각성하라.
4. 구한말 경주 시조 태사공의 운곡서원을 통도사와 불국사 승도에게 탈취당할 위기에서 이를 형장에 맞서 지켜낸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며 우리도 신명을 걸고 낭중공 유적을 사수할 것을 선언한다.

2009년 4월 23일
안동권씨화산부원군종회 회장 권진택權晋澤 외 임원일동